

Misson 함즐함울,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예’와 ‘옛’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는 “지나간 때의”라는 뜻을 지닌 말로 다음에 반드시 꾸밈을 받는 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뒤에 오는 말이 명사 등과 같은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말이 오면 ‘옛’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쓰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예’ 다음에 조사가 오면 그냥 ‘예’로 쓰고, ‘예’ 다음에 어떤 낱말이 오면 그 낱말과 합성하면서 사이사이 들어간 ‘옛’을 씁니다.

예를 들어 ‘예’ 뒤에 조사가 오면, “예부터 전해 오는 미풍양속입니다.”, “예스러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처럼 씁니다. ‘예’ 뒤에 낱말이 붙으면 ‘옛’이 되어, “옛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공기가 훨씬 맑았습니다.” “옛사랑, 옛길, 옛정, 옛터”처럼 씁니다.

환경 교실 4번째 시간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우리들



환경 호르몬이란 체내에 들어와서 마치 체내에 있는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우리 신체를 교란하는 유해한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이 인류 생존자체(생식불능)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단시일에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과 우리가 이러한 환경 호르몬에 무방

유행병인 화학 물질 중독이 미성숙한 상태의 어린이들을 쉽게 중독시킨다. 어린이들은 식품첨가물이 많이 첨가된 과자와 유해 화학 물질(형광제 등)이 많이 첨가된 장난감 등으로 인해 쉽게 중독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

구역모임

“4교구 믿음구역” 바다나들이



4 교구에 청각장애우들만의 믿음 구역이 있다. 이들은 수련회에도 함께 참여하여 갯벌 체험을 하는 등 다른 구역 식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믿음 구역은 지난 11월 19일과 20일에 1박으로 부산 나들이를 갔다. 작은 그들만의 테두리 안에서 탈피하여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것이다. 짧은 일정 속에서 바다내음 맡으며 부산 항만과 유엔묘지 관람 등 여러 관광 명소를 방문했다. 유엔 묘지 참배할 때는 6.25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대한 감회에 숙연함을 가졌다.

모처럼의 나들이에 그들의 손놀림은 한층 즐거웠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나마 큰 소리도 질러 보았다. 참석한 모두는 일 년에 단 몇 번이라도 이같은 날들이 있기를 소원했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권사회-2007년도 회장 선출



지난 11월21일 화요일에 권사회에서는 2007년도 신임 권사회장을 선출하고 2006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임 권사회장으로는 김지자 권사가 선출되었다. 김지자 권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권사회를 만들어 가자며 소감을 대신했다.

함즐함울에 실릴 성도들의 글을 받습니다!

〈로템나무〉
작은 사진이나 생각속에서 발견한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A4 1/4 분량

〈나의 신앙이야기〉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간증문 A4 2/3 분량

〈구역모임, 사역부서 이야기〉
서로에게 사랑과 덕을 쌓는 공동체 이야기 A4 1/3 분량

※위의 글을 hamnews2006@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사는 함즐함울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제 194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1월 26일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

12월 4일부터 왕대일목사 인도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12월 4일부터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이번 새벽기도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인 왕대일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는 서방교회가 4세기부터 지켜온 것으로 성탄절 이전 네 주간 동안에 지켜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이며 교회력의 시작이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 즉 그리스도인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절기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주님의교회는 대림절을 맞아 새벽기도회를 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설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왕대일 목사가 담당하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출25:8)이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도전할 것이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참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다.

12월 4~8일(월-금) 오전 5:30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무지개호스피스 수료식

이제 현장의 필요에 따라 사랑의 호스피스로



피스교육생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호스피스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교육받았다. 교육의 내용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부터 환자와 대화하고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선택으로 이루어진 발맞추어 교육은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의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10주간 40시간의 강의로 진행된 35기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은 주님의교회 성도 20여명을 포함해 총 1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제 이들은 각자의 형편과 현장의 필요에 따라 호스피스로 봉사하게 된다.

2007 교회요람 사진촬영

오늘부터 두 달간 1부예배가 끝나는 아침 8시 30분부터 4부예배가 시작하는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사진촬영이 있다. 사진촬영의 대상은 2005년도 요람에 사진이 없는 사람과 새롭게 사진을 바꿀 사람이다. 특별히 이번 사진촬영은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장비를 준비해 보다 좋은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등록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나의신앙이야기_ 권주리	2면
추수감사예배	3면
구역모임_바다 나들이	4면

로템나무

대림절 화환과 촛불의 유래

Advent Wreaths & Candles

사람들은 초기교회공동체 부터 대림절기간을 기념할만한 가시적인 것을 요구해 왔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바이킹은 대림절 화환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상록수는 훌륭한 영감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상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유럽의 겨울은 무척이나 춥고 길어 일주일 내내 어둠과 추위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나무의 파스함과 강인함을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죽어 있는 겨울도 전나무의 생명력만큼은 막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이 나무를 믿음의 상징으로 바라보았다. 대림절 기간 동안 그들은 전나무의 가지를 꺾어 원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초를 세워 자신들이 살아온 날들과 강한 믿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온 빛을 상징하게 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예고하는 대림절 기간에 이루어지는 화환과 촛불의 기원이 되었다.

Traditions of Christmas
(ACE COLLINS, ZONDERVAN)
中에서

예배의 현장

"우리를 강건케 함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



지난 22일 수요일에 배에서 는 요한복음 9장 1절~12절을 주제로 김현령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말씀은 이른바 '실로암의 기적'으로 알려진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지금이야 이 기적이 성경을 통해 잘 이해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편이었다.

먼저 '소경이 눈 고침 받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당시 는 '마땅히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들은 죄인인 소경이 눈 고침을 받았다는 점을 썩 달갑게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만 있을 뿐 타인을 정죄할 권리를 갖

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노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동일시 하여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는 우를 범했다.

마지막으로 소경의 부모가 있다. 이 기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소경의 부모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소경의 부모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였으므로 '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무책임한 대답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점점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경은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만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을 하게 된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중등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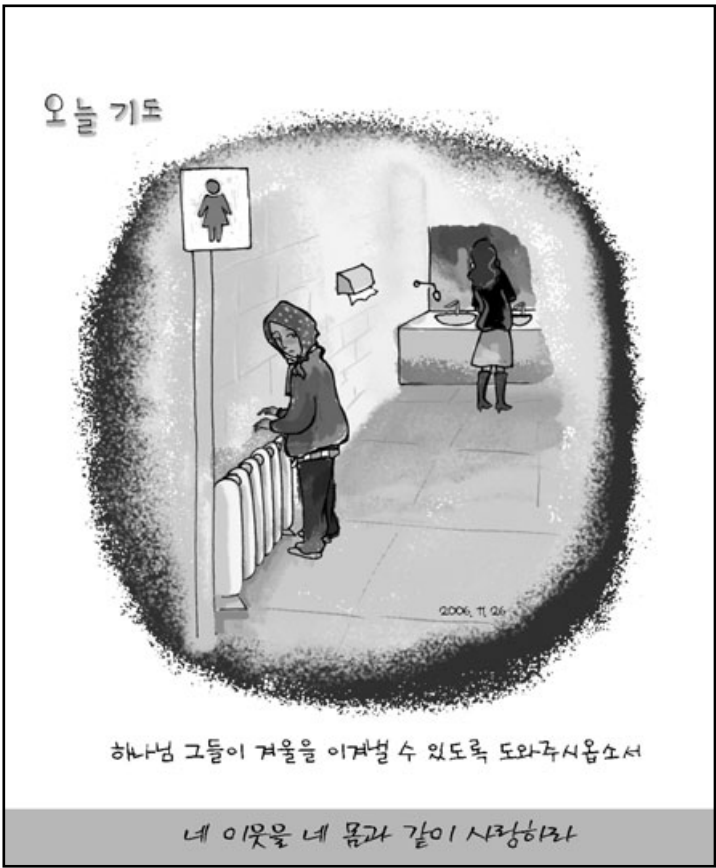
전도사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3부 예배 후에 교사들은 한 보리밭집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는데, 한 교사는 그 식당이 교사들의 지난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 나누기에 안성맞춤이었다고 했다.

몇 십 년 전 빌리그레함 목사집회를 통해 태증에 있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고백하는 임경순 전도사는 한나와 사무엘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함께 한 교사들은 추수감사절에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심과 삶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에도 교사로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홍의운(집사, 중등부교사)



시온찬양대

야외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11월 18일 토요일, 시온찬양대원들은 쌀쌀한 초겨울 아침, 양수리 세미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온실에서 자라는 수상식

물과 실외에서 수련을 키우는 곳 등을 안내받은 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기념촬영을 했다.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를 부른 후, 정희성 목사는 빌립보서 1장 5-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 전하며 교제가 공동체가 되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했다.

찬양대원들은 식사 후 정약홍선생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두물머리 강변을 산책했고 총무집사의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맛있는 점심과 교제, 그리고 역사속의 인물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권주리(집사)

나의신앙이/기

가정사역의 아름다운 고백 “주님, 우리가 부부입니다”

지난 11월 18일 (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 (행가람), 제5회 큰 모임이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26쌍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겨울의 초입이었지만, 봄날과도 같은 따뜻한 햇살에 고향을 찾아온 마음들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와 오늘의 만남들을 기대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온 발걸음들이었다. 교제와 게임, 언제 먹어도 맛있는 저녁 후, 25년 이상을 살아오신 두 부부의 감동적인 편지 낭독이 있었다. 아쉬웠던 세월 속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풀어내며 이제 다시 신혼처럼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작정한

두 부부의 눈물어린 고백이 모인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이어 강의 시간에 동송교회 가정사역 담당 최우영 목사는 에고그램으로 삶의 유형을 진단해주었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부부입니다'를 고백해야 하며 자녀들에게도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나와 다른 스타일의 배우자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서 섬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갈등하며 살아온 시간

들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돕는 배필로 서기로 작정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난 2년의 세월동안 가정사역팀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부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케 하였고, 또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하셨다.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30CUP 예배 취재

“추수 감사 예배” 고난을 이겨낼 힘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난주일 오후 3시 30분, 대예배실에서는 30CUP 사역팀이 준비한 추수감사예배가 5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드려졌다.

오프닝은 “작은 빵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어린이 연극이었다. 베포어도 감사를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이들의 모습과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되었지만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의 착한 마음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진리를 담은 연극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여준 연극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찾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나눔과 감사를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30CUP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은 우릴 만드신 분’ 등 찬양을 부른 성도들은 “파란 구두 율트라 맨” 황교진 형제의 신앙 간증을 들었다. 뇌졸중으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머니의

간병을 해오고 있는 그는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앞에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은 주연이고 자신과 어머니가 조연인 한 편의 드라마라고 말했다. 감사스럽게 고난을 직면했을 때의 기도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why의 기도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까?’ 하는 how to의 기도도 바뀌어 가면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부족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다는 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보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셔서, 부족한 부분

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황교진 형제의 간증은 성도들에게 그의 굳건한 신앙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번 예배에서의 특별한 시간은 “루디아의 집”의 시각장애인 네 명이 성경구절(로마서 12장 전문)을 암송했다는 것이다. 비록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등불이 되어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목소리로 암송할 때, 듣는 모든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이를 지켜 본 성도들은 감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주어진 삶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C.C.M 보컬 그룹 “SOUL SINGERS MEN”의 감미로운 찬양으로 은혜 충만한 추수감사절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① 파란구두 율트라맨 -황교진씨 간증
② Soul Singers Man 찬양
③ 어린이 연극 -“작은 빵의 축복”
④ 내발의 등, 주의말씀 -시각장애인 성경암송



(30Cup 찬양팀)

유년부 추수감사절예배

민음의 줄기를 단단히 붙들고...



지난 주일 11월19일, 유년부는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들이 준비한 연극을 유년부실에서 공연했다. 이 연극은 유년부담당인 이진화 전도사가 직접 아이들을 위해 쓴 희곡으로 교사들과 중등부 보조교사학생들이 같이 만든 작품이었다.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이 서로 이야기 한다. 간밤의 태풍에 떨어진 사과, 배, 밤, 대추 등의 과일들과 아직 곳곳하게 줄기에 매달린 늙고 못생긴 호박 중에 누가 주인님에게 선택되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실랑이가 이어진다. 아무리 예쁘고 맛있는 과일이라도 줄기에서 떨어진 것은 소용이 없고, 결국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줄기를 단단히 붙들고 있던 늙은 호박이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된다.〉

이 연극을 위해 교사들은 지난 2주간 연습을 해왔고, 보조교사인 중고등부학생들, 박가희(중3), 한가림(중3), 박지혜(고2)가 의상제작과 소품을 맡았다.

공연은 12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년부 어린이들은 과일로 분장한 선생님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 일제히 무대 가까이로 몰려들었다. 공연을 보는 어린이들이 극 속에 빠져서 연기는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하는 모습은 진품이었다.

유치부 추수감사절예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는 11월19일 추수감사주일일을 맞이하여 감사주일예배를 드렸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과일을 바구니에 가득 담은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연극을 준비해 공연했다.

〈어떤 임금님이 호박스프를 맛있게 먹은 후 맛있는 스프를 준비한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려하자 요리사는 호박이 맛있게 익었기 때문에 훌륭한 스프를 끓일 수 있었다고 호박에게 상을 양보한다. 임금님이 호박을 부르자 호박은 자신이 맛있게 된 것은 해님 덕분이라며 해님에게 상을 양보한다. 임금님이 해님을 부르자 해님은 자신이 호박을 잘 익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극이었다. 연극을 본 후 어린이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함께 외치고 찬양을 불렀다. 무엇보다도 귀한 어린이들을 유치부로 인도해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